

##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강연 제173차 원자력계 조찬강연회 개최



강연을 하고 있는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조찬강연회에 참석한 원자력계 주요 인사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한국원자력학회와 공동으로 9월 24일(화) 오전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173차 원자력계 조찬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김종경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송명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김기학 한진원자력연료(주)사장, 최영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등 원자력 관련 주요 인사 135명이 참석한 이날 조찬강연회에서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에너지, 여건의 변화와 하반기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손양훈 원장은 강연을 통해 에너지 가격 급등과 여건 변화, 에너지, 국가의 기본 Agenda, 하반기 에너지 이슈와 정책 방향 등에 대해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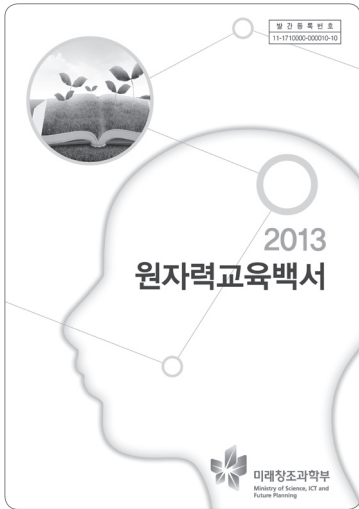
## 2013 원자력 품질보증교육 실시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주최한 「2013 원자력 품질보증교육[실무과정]」이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부설 원자력평생교육원에서 실시되었다.

24개 기관/기업에서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강좌는 원자력 관련 품질 관리 능력의 향상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 「원자력 교육백서」 발간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주요 원자력 교육 훈련 기관들의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는 「원자력 교육백서」를 10월 1일 발간·배포했다. 이번 백서 발간은 산-학-연 21개 기관이 참여하여 발족('11.6월)한 원자력교육협력협의회에서 처음 제안하였으며, 2012년 12월부터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주관으로 각 기관에서 자료 협조를 받아 공동으로 집필 작업을 진행하였다.

원자력교육백서는 원자력 교육 훈련 기관별 프로그램 현황과 지난 10년간의 추진 성과, 인프라 등 전반적인 활동 사항을 종합·정리한 자료로서, 원자력 유관 기관에 제공하여 정책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본 백서는 총 1,000부를 발행하여 원자력 유관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사무 환경 개선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사무국이 이종진 상근부회장의 적극적인 사무 환경 개선 의지에 따라 변모의신을 꾀했다. 기존의 부서 중심의 획일적인 배치와 달리 개인 사무 공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를 갖춰 집무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각 실마다 회의 탁자를 놓아 소통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사면이 벽으로 막힌 종전의 회의실을 전망 좋고 통풍이 잘되는 방으로 옮겨 쾌적한 회의 공간을 확보했다. 특히 각 실의 명칭을 직원들의 공모를 통해 회의실은 나눔누리실, 자료실은 정보바다실, 탕비실과 창고는 안다미로('담은 것이 그 그릇에 넘치도록 많게'라는 우리말), 여직원 공간은 쉼누리실로 고유 명칭을 정해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했다. 일신된 모습이 사무국에 걸린 캐치프레이즈처럼 새로운 얼굴과 변화된 마음가짐과 함께 한국원산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